반전의 나지완 "목표는 300홈런·1000타점"

2019 시즌 부진을 면치 못했던 KIA 나지완이 올 시즌 공·수에서 활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올 시즌 공·수 활약하며 존재감…프랜차이즈 최다홈런 등 타이거즈 기록 경신은 '덤'

KIA타이거즈 나지완의 2020시즌은 '행복'이다.

KIA 나지완은 반전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나지완은 56경기 출전에 그치며 0.186의 타율과 6홈런, 17타점을 남겼다. 장점으로 꼽히던 선구안에서도 조급함을 노출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컸다.

하지만 나지완은 2020시즌 공·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선수가 됐다.

13일 경기까지 54경기에 나와 0.292의 타율로, 9개의 홈런과 40타점을 기록했다. 주전 좌익수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역할을 하느라 몸이 힘든 날도 있지만 나지완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나지완은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수비까지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만 잘 배려해주신다. 내 컨디션에 맞춰 준비하고 즐겁게 경기를 하고 있다. 경기장에 나와서 뛰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믿음'을 얻으면서 조급함이 사라졌다. 한 타석 한 타석에 연연하지 않고 한 경기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뛰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차분하게 대결을 하면서 장점인 선구안도 빛을 발하고 있다.

나지완은 "최근에 잘 맞은 타구들이 정면으로 가서 안타까운 순간이 많다(웃음)"며 "그래도 감독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 한 번 치면 몰아친다는 자신감도 있다. 또 작년과 달리 상대가 승부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느껴진다"고 올 시즌 달라진 점을 이야기했다.

확 달라진 '나' 〈7.13 현재〉

	2019	2020
경기	56	54
타율	0.186	0.292
홈런	6	9
타점	17	40

달라진 존재감,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순간도 있었다.

나지완은 지난 9일 KT와의 홈경기에서 개인통산 9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6-4로 앞선 7회말 선두타자 박찬호의 2루타가 나왔다. 김호령의 보내기 번트로 1사 3루. 그러자 상대가 터커와 최형우를 연달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면서 루를 다 채웠다.

나지완은 이상화의 초구 커터를 공략, 병살플레이를 노렸을 상대에게 쐐기 만루포를 선물했다.

나지완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었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좋게 홈런이 됐다"며 "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기분이 좋지 않기도 했다(웃음). 타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고 웃었다.

이 홈런으로 KBO리그 역대 53번째 2000루타 기록을 달성하는 등 나지완은 올 시즌 조용히 타이거즈의 기록을 채워가고 있다.

나지완은 지난 5월 29일 KT 원정에서 '타이거즈 레전드' 김성한을 넘어섰다.

이날 나지완은 KT 신인 소형준을 상대로 시즌 4호포이자 개인 통산 208번째 홈런을 날렸다. 이 홈런으로 나지완은 김성한(207개)이 보유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꼭 이루고 싶었던 기록이었다"며 감격의 소감을 밝힌 나지완은 지난 13일 키움전에서 다시 한번 미소를 보였다.

4-1로 앞선 2회말 2사 1·3루에서 키움 선발 한현희를 상대로 좌중간 적시타를 날리며 2타점을 수확, KBO리그 35번째 800타점 주인공이 됐다.

나지완은 "800타점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전광판을 보고 알았다"며 "기록도 기록이지만 평소 약했던 투수를 상대로 기록한 적시타라서 더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야구 인생의 갈림길에 섰던 나지완은 다시 꿈을 꾼다.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좋다"며 300홈런과 1000타점을 이야기한다.

나지완은 "어려운 목표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목표를 높게 잡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300홈런과 1000타점을 생각하면서 뛰겠다"며 "무엇보다 팀에 의미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타자로 팬들이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남은 시즌 팀의 중심타자와 베테랑으로 모범을 보이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안방서 설욕전 나서

오늘 FA컵 4R 강원전
전남-전북 '호남더비'

지난 12일 강원FC와의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공을 다투고 있는 광주FC 김주공(가운데). 광주는 3일 만인 15일 안방에서 강원과 FA컵 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주FC 제공〉

15일 오후 7시 2020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가 펼쳐진다.

광주FC는 강원FC를 상대로 설욕전을 벌이고, 전남드래곤즈는 전북현대와 '호남더비'를 치른다.

지난 12일 강원 원정을 다녀온 광주는 3일 만에 강원과 재대결 한다. 광주로서는 앞선 대패를 갚을 기회다.

광주는 11라운드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1-4 대패를 당했다. 직전 경기에서 이민기와 여봉훈의 퇴장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컸다. 윌리안까지 사후 징계로 퇴장 징계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원정길이었다.

광주는 안방에서 앞선 패배를 설욕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18일에는 부산아이파크와의 정규리그 12라운드 대결을 벌여야 하는 만큼 광주는 이번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활용할 전망이다.

마르코, 김효기, 김태윤, 한희훈 등 주전급 선수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현, 정현우, 허율, 이희균 등 젊은 선수들도 패기를 앞세워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광주는 먼 길을 오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홈 이점을 앞세워 강한 압박과 스피드로 초반부터 강원을 흔들어야 한다.

장기인 조직력과 스피드를 활용한 강원의 뒷공간 공략도 광주의 필승 전술이다.

전남은 'K리그1 디펜딩 챔피언'인 전북을 상대하기 위해 적지로 간다.

전남은 앞선 FA컵 포함 최근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안양원정에서 0-0으로 득점에 실패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연달아 4골씩 몰아넣으며 화력을 과시했다.

2018년 9월 26일 이후 659일만에 열리는 '호남더비'다.

전남은 2018년 9월 25일 전북과 정규리그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 시즌이 끝난 뒤 K리그2로 강등되면서 전북과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전남은 FA컵과 인연이 깊다.

1997년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고, 2006·2007년에는 연달아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03년에는 준우승했다.

대회 MVP와 (1997년 김정혁, 2006년 김효일, 2007년 김치우), 득점왕도 (1997년 노상래, 2000년 세자르, 2010년 지동원-인디오 공동) 각각 세 차례 배출했다.

이번 시즌 다시 전남이 FA 기록에 도전한다.

전남은 2라운드(32강) 충주시민축구단(K4리그)과의 경기에서 2-0 승리한 뒤, 지난 1일 3라운드(24강)대결에서는 같은 K리그2의 경남FC에 4-0으로 골폭풍을 몰아치면서 대승을 만들었다.

반면 전북은 최근 기세가 주춤하다.

지난 5일 상주상무에 0-1로 패했고, 11일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그 사이 울산 현대가 선두로 올라섰고, 핵심 공격수 이동국은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전북은 최근 FA 징크스에도 시달리고 있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FA컵에서 부천FC(2016·2017년), 충남아산(2018년), FC안양(2019년) 등 K리그2 팀들에게 연달아 덜미를 잡혔다.

전남이 다시 한번 전북에 FA 징크스를 안겨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시즌 포기 생각 안했다" 홈서 첫 연습경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홈구장에서 치른 첫 청백전 등판에서 만족할 만한 구위를 선보였다.

류현진은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청백전 선발 투수로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솎아내며 4피안타로 1실점(1자책점) 했다. 볼넷은 없었다.

투구 수는 59개였으며 이 중 40개는 스트라이크였다.

류현진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개막전에 맞춰 이닝과 투구 수를 늘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개막이 연기됐을 땐 몸 상태를 약간 끌어 내리려고 노력했고, 이후 일주일에 5회씩 규칙적으로 훈련하면서 몸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확산 문제에 관한 질문엔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이 가장 걱정됐다.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 아직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즌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해당 답변은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탓인지, 현지 매체들은 류현진이 올 시즌 포기를 고민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